국제고려학회 평양지부결성 20돐 학술토론회 토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11월

차 례

력사학, 고고학분과 15

민족고전, 민속학분과 20

철학, 정치학, 혁명력사분과

조선로동당의 기본정치방식-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대하여

사회과학원 사회정치학연구소 연구사 심청룡

본 론문에서는 조선로동당이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고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대하여 세가지 체계로 해설하고있다.

우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본질》에서는 그것이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철저한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라는 내용으로 해설하였다.

또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조선식사회주의의 존립과 발전을 좌우하는 기본정치방식》에서는 그것이 자주정치, 민주주의정치, 인덕정치를 실현할데 대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를 최상의 높이에서 구현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본태를 확고히 고수하고 사회주의위업을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는 위력한 정치방식인것과 관련된다는 내용으로 해설하였다.

또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기본요구》에서는 그것이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는 력량으로 되게 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일관시키며 반인민적인 현상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는것이라는 내용으로 해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풍에 대하여

사회과학원 사회정치학연구소 연구사 리철

본 론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풍에 대하여 세가지 체계로 해설하고있다.

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풍이 형성되여온 력사적과정》에서는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강위력한 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줄기찬 투쟁과정에 형성되고 공고화되였다는 내용으로 해설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풍의 기본내용》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투쟁기풍,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집단주의기풍,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미덕과 미풍, 군민대단결이 조선특유의 국풍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또한 《새로운 국풍을 창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줄기찬 투쟁》에서는 조선에서 삼지연시꾸리기에 충성의 마음을 다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로, 국풍으로 확립해나가고있다는것과 전사회적으로 인재중시, 교육중시, 과학기술중시를 국풍으로 확립해나가고있다는것 그리고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공민적자각이 국풍으로 확립되여가고있다는것을 비롯하여 강국의 위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국풍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공화국의 국력과 지위에 상응한 투쟁의 기치

사회과학원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실장 박사 김성일

본 론문에서는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의 막강한 국력을 비축하고 국제적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화국의 국력과 지위에 부응하여 제시된 가장 현실적이고도 정당한 사상리론이라는것을 해명하려고 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평화번영을 굳건히 담보하는 강력한 정치군사력을 마련하고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이룩해나가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핵위협과 공갈, 강권과 전횡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해나가고있는 엄연한 객관적현실에 바탕을 두고있다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

이로써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결코 주관이나 자의가 아니라 공화국의 현실에 토대하고 현실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제시된 타당하고도 정확한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기본판도에 대하여

사회과학원 **김일성, 김정일**동지혁명력사연구소 실장 문정철

본 론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무장투쟁의 기본판도를 국내, 조선땅으로 규정하시고 실현

해나가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먼저 항일무장투쟁의 첫 단계인 1930년대 전반기부터 국내, 조선땅이 무장투쟁의 기본지향점, 초점으로 되였다는것을 력사적사실들에 근거하여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1930년대 후반기와 1940년대 전반기에 백두산일대에 꾸려진 비밀근거지를 거점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확고히 고수하고 당창건준비사업, 조국광복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진데 대하여 력사적사실들을 안받침하여 서술하였다.

서경덕과 장재의 《태허즉기》사상 비교연구

사회과학원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실장 교수 박사 리순범

본 론문에서는 서경덕과 장재의 철학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견해인 《태허즉기(太虛卽氣)》사상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력사적으로 론의가 분분하였던 두 철학자의 관계문제를 해명하려고 하였다.

서경덕과 장재의 사상적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에서 서경덕의 《태허즉기》사상이 물질적기의 영원성을 강조하는데 집중되고 그것을 관철시켜 기의 시원성을 론증하였다면 한편 장재의 《태허즉기》사상은 세계의 실재성을 론증하는데 지향되고 《태허와 기를 분렬》시켜 세계의 시원성문제에서 모순을 발로시키였다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서경덕의 기일원론은 독창적인것이며 계승적측면에서 서경덕과 장재의 학술적련관을 운운하는것은 편견적인 론의이라는 결론을 내리였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대하여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박사 부교수 김철

론문에서는 먼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 개년계획이 정비전략, 보강전략에 기초하여 제시되였다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론문에서는 다음으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 개년계획의 총적방향이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것이며 중심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것이라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론문에서는 이와 함께 새로운 5 개년계획의 전제가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제대로 감당하며 국가경제의 주요명맥과 전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동하며 대외경제활동을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보완, 보강하는데로 지향시키는것이라는데 대하여서와 5 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실장 박성철

론문에서는 자체의 내부적힘을 전면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재편성하며 그에 토대하여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면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자는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을 높이 받들고 당 제 8 차대회 이후 경제건설분야에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고있는 조선인민의 투쟁내용을 체계화하였다.

론문에서는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힘을 집중하고있는것이라는데 대하여, 재자원화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되게 하는데 힘을 넣고있는것이라는데 대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는것이라는데 대하여, 인재중시에 특별한 주목이 돌려지고있는것이라는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론증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소중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전반적의무교육을 통해 본 조선의 교육제도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실장 량유진

본 론문에서는 공화국에서의 전반적의무교육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다른 나라에서의 의무교육제도와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공화국에서 전반적의무교육제도가 언제부터 발생하여 어떻게 변천되여왔으며 그것이 국가의 정책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담보되고 보장되고있는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료적으로 서술하였다.

최근 국제적인 지적소유권발전상황과 조선에서의 지적소유권보호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실장 김신호

본 론문에서는 최근 국제적인 지적소유권발전상황과 공화국지적소유권보호사업의 중심과업과 부문별과업, 금후 공화국지적소유권보호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먼저 최근 국제적인 지적소유권발전상황과 관련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지적소유권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항목을 선택하고 국가적투자를 집중하고있다는것, 지적소유권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고 해당 분야의 인재육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는것, 새로운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협력이 강화되고있다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해설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공화국지적소유권보호사업의 중심과업과 부문별과업에서는 지적재산의 창조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 지적재산의 보호를

위한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 지적재산의 류통과 리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과 지적재산의 사회적관리를 위한 체계와 질서를 세우는 사업을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그에 따르는 부문별과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

금후 공화국지적소유권보호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법체계와 집행제도를 개선강화하는것, 지적소유권지도관리체계를 확립하는것, 해당 부문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적인식을 높이는데 있다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언어시책으로 작성된 전국지명조사보고서의 문화사적의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서학순

론문에서는 우선 전국지명조사보고서가 조선민족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지명유산의 대보물고이며 전체 인민들의 관심과 국가적인 조치속에서 진행된것으로 하여 자료의 과학성과 정확성이 확고히 담보된 체계화된 지명대백과사전이라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지명조사보고서가 조선에서 지명정리를 력사주의적원칙에서 과학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한 학술적인 자료기지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여 사실자료들을 들어 론증하였다.

민족문자 훈민정음의 자질적특성에 대하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소장 박사 부교수 방정호

민족문자 훈민정음은 다른 문자들과는 달리 말소리를 내는 사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문자에 직접 반영하고 또한 말소리의 변화를 문자모양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문자모양만 보고도 소리를 직접 낼수 있게 만든 가장 리상적인 문자, 자질적특성을 갖춘 훌륭한 문자이다.

론문에서는 민족문자 훈민정음이 지닌 자질적특성에 대하여 문자의 착상과 음성학이 세련된 정도로 동기화되여있고 문자모양이 말소리체계에 맞게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있다는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삼국유사》(고구려조)에 기록된 지명 《서하》에 대한 력사지명학적 분석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박사 리성호

론문에서는 문헌기록에 보이는 《서하》와 《비서갑》(非西岬), 《조리비서》(助利非西)는 긴밀한 련관이 있다는것을 밝히고 《조리비서》의 지명유래와 변천과정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였다.

론문에서는 《서하》를 비롯한 고조선지명들이 수록되여있는 《단군기》, 《단군고기》의 기록들은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의 력사를 해명하는데 가치있는 사료라는것을 증명하였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기록된 《방언》, 《향언》, 《속훈》의 의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안경상

론문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실태를 리해하는데서 필요한 자료로 되고있는 《방언》, 《향언》, 《속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였다.

이 시기에 사용된 《방언》은 지금의 《방언》과 그 의미가 같으며 《향언》(鄕言)은 지금의 규범어와 같다는것을 밝히였다.

《속훈》(俗訓)은 세속적인 말을 나타내는것으로서 평범한 사람들의 말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조선의 옛 문헌들에 나오는 《동요》(童謠)라는 표현의 의미와 문예학적개념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연구사 교수 박사 박길남

본 론문에서는 《삼국사기》를 비롯한 조선의 옛 문헌들에 나오는 《동요》의 의미와 오늘날 문예학적개념으로서의 동요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차이점과 련관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먼저 문헌기록자료들에 기초하여 력사어로서의 동요의 의미가 일정한 정치적 또는 개인적동기나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들의 의도와 지향을 담은 이러저러한 내용의 노래들을 짓고 그것을 아이들을 매개로 퍼뜨려 항간에 류포시킨 노래를 말한다는데 대해 론술하였다.

다음으로 옛문헌들에 동요로 기록된 작품들이 오늘날 문예학계에서는 향가라는 문예학적개념으로 통용되고있는데 그것은 그 기사의 형식과 사상정서적내용의 특성에 따라 붙여진것이라는것을 밝히였다. 그리고 력사어로서의 동요와 문예학적개념으로서의 동요의 차이점과 련관성에 대하여 분석서술하였다.

일제식민지사회악을 비판한 최서해의 장편소설 《호외시대》에 대하여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연구사 석금철

본 론문에서는 장편소설 《호외시대》에 대한 문예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장편소설창작가로서의 최서해의 작가적면모를 새롭게 밝히려고 하였다.

먼저 장편소설 《호외시대》가 황금만능주의를 설교하는 당대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과 반감의 표시로 지나온 한생에 대한 인생총화작으로서 창작되였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장편소설 《호외시대》의 구체적인 인물형상과 생활묘사를 통하여 일제식민지착취사회의 불합리한 모순을 폭로비판한 작가의 계급적 립장을 엿볼수 있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장편소설 《호외시대》가 당대 사회모순의 근원과 그 해결방도들을 밝히지 못한 부족점을 내재하고있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조선민요의 지방적특색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주체음악연구소
후보원사 교수 박사 박형섭

본 론문에서는 조선의 민요유산을 서도지방민요, 남도지방민요, 동해안지방민요, 중부지방민요, 북부지방민요로 나누고 선률형식적특징에 의하여 구별되는 지방별 민요유산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조선민요의 지방적특색이 구체적으로 민요선률의 구성요소의 차이에 의하여 나타난다는것을 대표적인 지방별민요들을 통하여 밝히였다.

력사학, 고고학분과

고려 국청사에 대한 조사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후보원사 교수 박사 조희승

본 론문에서는 고려시기의 유명한 사찰이였던 국청사의 위치를 문헌조사와 현지답사 및 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정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먼저 《고려사》를 비롯한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국청사의 창건년대와 지위에 대하여 밝히였다.

다음으로 문헌조사와 두번에 걸친 현지답사 및 시굴조사를 통하여 국청사가 오늘의 개성시 해선리에 있었다는것을 명백히 밝힐수 있게 되였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책봉, 조공을 통해 본 고구려와 중국 봉건국가들과의 관계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강세권

본 론문에서는 고구려와 중국 봉건국가들사이에 이루어진 대외관계의 실상을 세가지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먼저 《책봉, 조공을 통한 고구려와 중국 봉건국가들사이의 국교설정과정》에서는 5세기초엽이후에야 고구려와 중국 봉건국가들사이에 책봉, 조공이라는 외교상관례가 이루어졌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고구려와 중국 봉건국가들사이에 설정된 책봉, 조공의 특징》에서는 책봉과 조공이 고구려와 중국 봉건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그

어떤 규제적역할도 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나라들사이의 주종관계, 신속관계를 보여주는 기본징표로는 될수 없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고구려와 중국 봉건국가들사이의 대외활동내용》에서는 고구려가 건국후 수세기동안 고조선의 옛땅수복의 력사적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의 여러 봉건국가들과 치렬한 공방전을 벌리였고 그 후에는 삼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봉건국가들과의 외교적 및 경제문화적교류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언제나 자주적대를 고수하였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고구려경기의 설치와 변천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조선력사연구소 소장
박사 부교수 윤신영

본 론문에서는 고구려의 경기제가 수도천도와 더불어 더욱 확장강화되는 방향으로 변천되였다는것을 밝히였다.

먼저 고구려가 졸본에 수도를 정하고있던 시기에 일부 지역만을 포괄하였던 경기령역이 령토의 확장과 더불어 B.C. 3세기말경에 5부의 전지역으로 확대되였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천도이후 고구려의 경기는 국내를 중심으로 다시 편성되였으며 그 지역적범위가 넓어지고 통치제도도 훨씬 강화되였다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다음으로 평양천도이후 경기의 령역은 평양성을 중심으로 사방 100~180리의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있었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의 력사적사실을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외곡책동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실장 교수 박사 위광남

본 론문에서는 1894년에 일어난 갑오개혁이 1884년의 갑신정변에 이어 조선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진보적개혁운동가들인 혁신관료들에 의하여 진행된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부르죠아개혁이였다는데 대하여 론하였다.

먼저 갑오개혁이 근대 조선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벌어진 부르죠아개혁이였다는데 대하여 분석서술하였다.

다음으로 갑오개혁이 개혁의 기본세력인 혁신관료들의 주동적역할에 의하여 진행된 부르죠아개혁이였다는것을 론증하였다.

다음으로 갑오개혁이 혁신관료들이 창설한 군국기무처의 활동으로 전개된 근대적개혁운동이였다는데 대하여 분석서술하였다.

끝으로 일제가 갑오개혁의 실시기간을 제멋대로 규정하여 조선사회력사발전에 그 무슨 기여라도 한듯이 외곡한데 대하여 론하였다.

최근 고고학분야에서 이룩된 성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소장 교수 박사 지화산

본 론문에서는 최근년간 원시 및 고대, 중세유적발굴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

먼저 신풍리유적, 향목리유적, 삼묘리바위그늘유적을 비롯한 원시시대

의 유적들이 발굴고증된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룡악산일대와 택암일대의 고인돌무덤들, 룡성리의 대규모부락터유적과 고인돌무덤떼를 비롯한 고대의 유적유물들이 발굴고증된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고구려성들이 조사확증되고 월지리일대에서 가치있는 벽화무덤을 비롯한 고구려의 유적들과 발해의 무덤떼와 성들, 고려 2대왕 혜종의 무덤과 만월대궁전유적이 발굴된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단군조선시기의 제단유적에 대하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실장 성철

본 론문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단군조선시기 제단유적들의 구조형식과 년대, 제단유적의 성격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먼저 제단유적의 분포정형과 대표적인 제단시설들의 구조형식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제단유적들의 년대가 B.C. 3천년기 초～B.C. 2천년기 말경으로 볼수 있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단군숭배와 관련된 제단시설이 평양일대에 집중되여있는것은 고조선 초기의 정치적중심지가 다름아닌 중서부조선지역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동암동유적발굴과 연구결과에 대하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실장 박사 김춘종

본 론문에서는 구석기시대유적인 동암동유적에서 나온 석기 및 동물화석, 식물상에 대한 분석과 년대측정결과를 통하여 동암동유적이 구석기시대 전기에 속하는 유적이라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동암동유적의 지질구조와 유적의 퇴적층상태, 유적에서 나온 석기, 골기, 짐승뼈화석, 포분화석자료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유적에서 나온 동물상과 포분식물상을 통하여 당시의 자연기후환경과 식물상을 복원한 정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동암동유적에 대한 고고학적연구, 고동물학적연구, 식물상에 대한 연구와 절대년대측정결과에 기초하여 이 유적이 구석기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유적이라는것을 밝히였다.

민족고전, 민속학분과

《일성록》에 대하여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최경성

《일성록》은 력대 국왕들의 일기형식으로 조선봉건왕조말기 150년간의 력사를 2 000여책으로 폭넓게 수록한 귀중한 민족고전의 하나이다.

론문에서는 《일성록》의 문헌적면모를 세가지 체계로 밝히였다.

《1. <일성록>의 편찬》에서는 《일성록》이 조선봉건왕조 22대왕인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 쓰던 《존현각일기》로부터 시작되고 규장각이 설치된 후부터 규장각 관리들에 의하여 지금의 제목을 달고 정연한 체계속에서 일정한 정리원칙에 따라 편찬되였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2. <일성록>의 특징》과 《3. <일성록>의 사료적가치》에서는 《일성록》의 기사수록방식과 수록된 사료들을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대표적인 정사체문헌들인 조선봉건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과 비교분석하면서 이 책이 국왕의 일기라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면서도 사료적측면에서 보다 신빙성을 띠고있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문헌기록을 통해 본 암행어사제도의 성립시기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실장 김근일

론문에서는《중종실록》권10의 기사에 근거하여 15세기 후반기에 이미 암행어사제도가 존재하였다는것을 새롭게 제기하고 해당한 기사내용을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있다.

첫째로, 암행어사제도가 성종통치년간(1470-1494)에 나왔다는것이며 둘째로, 암행어사의 파견에 대하여 초시기 적지 않은 사람이 반대하였다는것이며 셋째로, 어사와 암행어사의 파견이 같이 존재하였다는것이다.

19 세기 조선에서의 금석학의 발전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교원 박사, 부교수 옥명심

론문에서는 중세 조선에서 금석문에 대한 연구가 가장 성행하였던 19 세기 금석학의 발전면모를 몇가지 측면에서 서술하고있다.

우선 금석문의 수집정리가 보다 활발해지고 기록내용에 대한 연구가 심화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독자적학문으로 발전하였다는것을 밝혔다.

또한 금석문의 작성시기와 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고증학적연구방법이 널리 도입되면서 간단한 원문소개로 그치던 종전에 비해 새로운 학술적양상을 띠고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것을 밝히였다. 또한 국내의 금석학자들이 대외학술교류를 적극 벌리면서 조선의 금석문을 널리 소개하고 그를 통해 조선의 력사와 문화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것을 밝혔다.

민족고전 《대동운부군옥》에 대한 문헌학적연구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강좌장 박사, 부교수 리진주

1589년에 권문해가 편찬완성한 《대동운부군옥》은 조선의 가장 오랜 사전유산으로서 중세력사와 문화연구에서 가치있는 민족고전유산이다.

론문에서는 지난 시기 《대동운부군옥》의 문헌적면모를 네가지 체계로 나누어 서술하고있다.

먼저 《대동운부군옥》이 운서와 사전, 류서의 특성을 다 갖춘 새로운 형식의 도서라는데 대하여 밝혔다.

다음으로 《대동운부군옥》의 저자가 자기 나라의것을 내세우려는 립장으로부터 30여년간 노력을 기울여 방대한 사전을 완성한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대동운부군옥》이 구성체계상 운목순, 자류순으로 편찬되고 뜻풀이가 간단명료하여 리용하기 편리한 우점을 가지고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동운부군옥》의 사료적가치와 제한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인삼무역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장성남

본 론문에서는 조선봉건왕조시기 명나라, 청나라를 비롯한 중국의 봉건국가들과 진행한 인삼무역을 력사기록에 근거하여 18세기중엽을 계선으로 하여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18세기중엽이전 명나라, 청나라에 대한 인삼무역은 주로 사신단을 통

한 공무역과 사무역, 밀무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수출된 인삼은 수삼이 위주였다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18 세기중엽이후 청나라에 대한 인삼무역은 앞선 시기와는 달리 사신단에 속한 상인들의 공식적인 사무역이 허용되여 활발히 진행되였으며 수출된 인삼은 오래 보관할수 있는 홍삼이 기본이였다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한일합병조약》과 관련한 왜왕의 《조서》를 전달하는 장소선택에 비낀 일제의 교활하고 간특한 책동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소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공명성

본 론문에서는 《한일합병조약》과 관련한 왜왕의 《조서》전달식을 창덕궁 인정전에서 진행하도록 하여 조선이 일본에 식민지로 되였다는것을 각인시키려고 획책한 교활하고 간특한 범죄적행위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근대적국가체제개편을 표방하면서 1897 년 10 월 국왕을 황제로 부르고 조선이 전제군주국임을 선포하였으며 황제의 상징인 룡을 기본궁전이였던 경복궁의 근정전 옥좌와 천정에 형상하여 놓은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교활한 일제는 기본궁전이였던 경복궁 근정전이 아니라 황제국의 제왕을 표시하는 봉황을 형상하여놓은 창덕궁 인정전을 일본《천황》의 《조서》전달식장으로 선택함으로써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였다는것을 다시금 내외에 각인시키며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합법화》하고 조선인민의 반일독립의식을 말살하려고 획책하였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고구려의 머리쓰개 골소에 대하여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박신정

본 론문에서는 고구려에서 높은 급의 인물들이 썼다고 하는 머리쓰개 골소가 어떠한 머리쓰개였는가를 문헌자료와 고구려무덤벽화자료에 기초하여 새롭게 밝히였다.

먼저 고구려의 머리쓰개가 고구려무덤벽화의 주인공들에게서 찾아볼수 있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고구려무덤벽화자료에 근거하여 골소는 정사를 볼 때 쓴 머리쓰개가 아니라 일상 생활시에 쓴 머리쓰개이며 등급에 따라 골소의 색갈도 서로 달랐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